

9월 18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9월 18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뉴욕 `가격부담에 쉬어 가자`..다우 0.08%↓</p>	<p>뉴욕증시가 17일(현지시간) 차익매물이 나오면서 나흘만에 약세로 돌아섰음.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가격부담이 더 크게 작용했음. 오라클과 페덱스의 기대치에 미달한 실적발표도 부담이 되었음.</p> <p>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7.79포인트(0.08%) 소폭 떨어진 9,783.92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6.40포인트(0.3%) 하락한 2,126.75를,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3.27포인트(0.31%) 밀린 1,065.49를 각각 기록했다.</p> <p>이날 발표된 실업수당과 주택착공 지표, 필라델피아 지역 제조업지표는 한결같이 개선세를 보였음. 8월 주택착공은 최근 9개월래 최대를 기록했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예상치를 큰 폭으로 웃돌며 경기회복 기대감을 자극했음. 이에 따라 주요 지수들은 오전중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음. 그러나 뉴욕증시가 전날까지 9거래일중 8일간 상승하며 11개월래 최고치로 상승한데 따른 가격부담이 적지 않았음. 때 마침 미국의 주요 기업인 오라클과 페덱스의 매출실적이 기대치를 밑돈 점이 투자심리에 부담을 주었음. 이에 따라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은행업종과 주택건설주, 금속관련 상품주를 중심으로 차익매물이 증가하면서 뉴욕증시는 결국 나흘만에 약세로 돌아섰음.</p> <p>다우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의 블루칩 종목중에서는 주가가 오른 종목이 14개, 주가가 내린 종목이 16개를 기록해 하락 종목이 조금 많았음. 뉴욕증시가 조정을 보인 영향으로 안전자산인 미국채 가격은 나흘만에 오름세로 돌아섰고, 미 달러화는 약세를 멈추고 보합세를 나타냈음. 최근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주식시장과 동일한 움직임을 보여왔던 국제유가도 주식시장 조정과 맞물려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음.</p>
<p>美 9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큰 폭 개선`</p>	<p>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은 9월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가 14.1을 기록했다고 밝혔음. 이는 전월 수치인 4.2를 크게 웃돌 뿐만 아니라 8을 예상했던 시장의 전망치도 크게 웃도는 수준임. 지수는 기준점인 `0` 밑돌 경우 제조업경기 위축을 의미하며, 기준점을 넘어서면 경기회복세를 의미함.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최근 10개월 연속 기준점을 밑돈 후 지난 8월 기준점 돌파후 상승세를 지속했음.</p>
<p>美 8월 주택착공·착공 허가건수 9개월래 최대</p>	<p>미 상무부는 8월 신규주택 착공건수가 연율로 59만 8,000채를 기록, 전월대비 1.5% 증가했다고 밝혔음. 이는 작년 11월 이후 최근 9개월래 최대 규모이고 시장의 예상치에도 부합했음.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시장의 컨센서스로는 연율 59만 8000채가 예상됐었음.</p>

제목	주요 내용
美 주간 실업수당 54.5만건..예상보다 적어	미 노동부는 지난주(12일 마감기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주 55만 7,000건(수정치)보다 1만 2,000건 감소한 54만 5,00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시장의 전망치를 밀도는 수치이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시장의 컨센서스로는 55만 7,000건이 예상됐었음. 변동성을 줄여 추세를 살피는데 도움을 주는 4주 평균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전주 57만 1,750건에서 56만 3,000건으로 감소했음. 1주 이상 지속해서 실업수당을 신청한 건수(5일 마감기준)는 12만 9,000건 증가한 623만건을 기록했다.
국제유가 급등부담..72달러선에서 주춤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음. 단기급등 부담속에 미중시 상승세와 미 달러화 하락세가 주춤한 점이 영향을 미쳤음. 1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0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4센트(0.1%) 하락한 72.47달러로 마감했음. 최근 국제유가는 경기회복 기대감을 반영해 주식시장과 동일한 흐름을 보였음. 그러나 이날 경기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가격부담으로 장중 혼조 양상을 보이자, 유가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음.
환율,연중최저 또 경신.. 1,200원대 중반	환율이 사흘째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를 하루만에 경신했음. 국내증시가 상승하고, 외국인들이 대규모 주식 순매수에 나서면서 환율하락을 이끌었음. 그러나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지속되면서 환율은 추가하락이 제한되며 1,200원대 중반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이어졌음.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일대비 6.5원 하락한 1,204.8원으로 마감했고 환율은 전일(16일) 1,211.3원으로 마감해 연중 최저치를 경신한데 이어 하루만에 또다시 울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음. 이날 환율은 증가기준으로 작년 10월1일(1,187.9원) 이후 가장 낮은 것임.
소액서민대출 10년간 2조 지원..25만명 혜택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이 이름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바꾸고 앞으로 10년간 2조원을 지원키로 했음. 재원은 재계와 금융권의 기부금으로 조성되며 10년간 약 20~25만 가구 이상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음. 1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서민 자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마이크로 크레딧)사업 확대방안`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하고 올 12월부터 시행키로 했음.
피치, 韓 금융기관 등급전망 상향...`안정적`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17일 한국 금융기관의 장기 외화표시채권 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발표했다. 등급전망이 높아진 금융기관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우리금융,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등임. 피치는 "한국의 금융 환경이 지난해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보호 신청 이후 예상됐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